

Session 05 여섯째 인봉 : 우주적 혼란과 하나님의 영광 (계 6:12-17) (Sixth Seal : Cosmic Disturbances and God's Glory)

I. 여섯째 인봉 : 대 환란의 전환점

내가 보니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갈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 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낱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2-17)

- A. 적그리스도를 향한 다섯째 인봉 심판은 의를 풀어놓으시길 구하는 기름부음 받은 중보기도가 증가되는 것이다. 이는 순교한 성도들에 의해 불타오르게 되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명하여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시대의 기도 운동에 대해 예언하셨고, 이는 적그리스도의 공포 통치로 인한 극심한 불의함에 대항해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부르짖는 기도 운동이다(눅 18:8).
- B. 가속화되는 기도 운동은 적그리스도를 향한 심판이 더욱 가중되도록 한다. 다섯째 인봉은 계시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차원의 심판을 풀어놓으시는데, 여섯째 인봉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나팔심판과 대접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 심판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풀어놓은 “하늘의 무기”와 같은 초자연적인 차원의 심판들이다.
- C. 계시록 6:12-17절은 다차원적인 예언으로써, 여러 가지 예언들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져서 여섯째 인봉 심판에서 나타난다(사 2:10-22; 미 7:16-17; 호 9:12-14; 10:8; 마 24:19-22; 눅 23:28-31). 각 예언들은 여섯째 인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II. 마지막 시대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게 될 것이다(사 2장; 미 7장).

- A. 이사야와 미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해 산에 숨는 자들에 대해 예언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 19 사 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사 2:10-21)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어지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미 7:16-17)

- B. 이스라엘은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 17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 24:16-18)

제 삼 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6-18)

- C.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떨며 도망갔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 (단 10:7-8)

- D.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리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한글 KJV : 실로 그 빛을 보고 놀랐으나)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행 22:6-9)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 (행 26:13-14)

내(요한)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 1:17)

- E. 예수님께서서는 여섯째 인봉에서 나타나게 되는 두려운 징조에 대해 예언하셨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before)에 있게 되는 일이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눅 21:25-26)

- F. 예수님께서서는 다섯째 인봉의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섯째 인봉을 여셨다. 그리고 이는 지구적인 스케일로 영광의 영(spirit of glory)을 풀어놓으시는 것이다(사 40:5). 예수님께서서는 핏박이 있는 곳에 그분의 영광을 풀어놓으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14)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 40:5)

III.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3-17)

- A. **하늘(Sky)** :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가듯 사라지게(갈라지게, 나뉘지게,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말려가게 하심으로, 하늘(heaven)을 볼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며 땅의 리더십들이 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계 6:14)

- B. **얼굴(Face)** :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 부르짖는다. 순교자들은 부르짖는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은 부르짖는다, “우리를 가리우라”.
- C. **별들(Stars)** : 소행성과 운석이 땅으로 쏟아져 충돌하는 부분이다. 별들에 대한 그리스어는 *aster*인데 이 단어에서 소행성(asteroid) 단어가 파생되었다. 여기서의 별은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를 말하며, 별들과 혜성, 운석, 소행성이나 여타의 불붙은 암석을 말한다.
- D. 지구의 지름은 8,000마일(12,800km)에 가깝다. 태양계의 해는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 큰 1,280,000km 정도이지만 작은 별에 속한다. 하나의 별이라도 지구에 부딪치게 된다면 지구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기에, 땅의 임금들은 산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다. 별들은 넷째 나팔 심판까지 하늘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계 8:12).
- E. **숨어(Hide)** : 강력한 세계의 리더들은 예수님의 진노로써 땅으로 떨어지는 소행성들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동굴 속으로 숨을 것에 대해 예언했으며, 이는 여섯째 인봉으로부터 시작된다(사 2:1,19,21).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사 2:10)

- F. **운석¹⁾(meteroid)**은 소행성(asteroid)보다 훨씬 작고, 몇 cm에서 10m 정도의 크기에 달하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며, 몇 g(행성 간 먼지)에서 50톤(호바 운석²⁾)에 이르기까지 무게도 다양하다. 매일 50

1) 역자주 : 유성체가 대기 중으로 떨어진 것

2) 역자주 : 세계에서 제일 큰 운석, 아프리카 나미비아 호바 농장에서 발견됨

여개에 달하는 운석이 지표면에 부딪치고 있으며 70% 정도는 바다에 떨어지고, 25% 정도는 비거주 지역에 떨어지고 있다³⁾. 발견되는 것은 하루에 1~10개 정도이다.

G. 지구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소행성은 약 1/4마일(400m) 정도의 크기이다. 이 정도로 큰 소행성은 대기 중에 핵겨울⁴⁾을 일으킬 만큼의 먼지를 일으킬 수 있다.

H. 운석은 지구상에 쏟아져 떨어지게 될 것인데, 무화과나무에 강한 바람이 불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요한은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파편들을 피하기 위해 동굴 속에 숨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이 일은 더욱 강화되어 일곱째 대접에서는 100파운드(45kg)에 달하는 우박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계 16: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100파운드)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계 16:21)

I.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 왕들과 큰 자들 중 많은 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일 것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밀교(신비주의)적인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높은 곳에서 죽음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J.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들이 골리앗에게 날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이(소행성) 종말론적인 거인(eschatological giant)인 적그리스도의 기반조직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K. 이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피해 산에 숨기보다, 담대해져서 예수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계 19:17-21).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적그리스도)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 19:19)

IV. 여섯째 인봉에 드러난 예수님의 진노의 또 다른 측면들

A. 해 : 예수님께서서는 이 초자연적인 어둠을 단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여기에는 화산 폭발 등으로 생긴 재와 파편, 먼지들로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핵폭탄으로 인한 방사성 낙진, 해와 지구 사이를 어떤 물체가 가려버리는 개기일식과 같은 자연 현상도 포함된다.

B. 검어지고 : 해는 검은 베옷처럼 검게 변할 것이다. 베옷은 다가올 심판으로 인한 애통함의 의복(사 33:9)이다.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통곡하거나 회개를 선포할 때 검은 옷 또는 베옷을 입었다(마 11:21; 눅 10:13; 계 11:3). 해는 애통함의 검은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셋째 인봉에서 보이는 검은 색 말과 동일한 부분이다(계 6:5).

3) 역자주 : 지구로 진입하는 개체 수는 훨씬 많다

4) 역자주 : 핵전쟁 후 발생하는 재와 먼지로 지구 고층대기까지 뒤덮혀, 태양광선이 지구표면에 닿지 않아 빙하기 같은 기후변화를 겪게 된다는 가설.

- C. 달 : 피같이 붉은 색은 죽음을 의미한다. 달은 피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둘째 인봉의 붉은 말(계 6:4)과 동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 외에도, 달이 가스나 개기월식으로 인해서 붉게 보이게 된다. 개기월식은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보름달일 때에만 일어난다.
- D. 지진 : 이는 계시록에서 6번 언급된다(계 6:12; 8:5; 11:13[2X],19; 16:18[2X]). 이는 4번 “큰” 지진으로 묘사되었다(계 6:12; 11:13; 16:18[2X]).
- E. 산과 ... 옮기우매 : 모든 산들은 제 자리에서 움직이게 될 것인데, 이는 이것들이 모두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들이 모두 파괴되는 것이라면, 어떤 이도 산 안에 숨지 못하게 된다. 이때에 산과 섬들은 없어지지 않고 움직여진다. 어떤 것들은 약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파괴될 것이다. 산의 지반이 움직이는 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이 다니엘에 의해 부각된 지중해라고 본다(단 7:2-3).
- F. 계시록에서는 다섯 번의 지진이 예언되어 있다 : 여섯째 인봉(계 6:12),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계 8:5), 일곱째 나팔 심판(계 11:15,19),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계 11:13), 지구상 가장 큰 지진으로 언급되는(스 14:4-5; 사 2:19; 29:6; 학 2:6,7) 일곱째 대접(계 16:17-21) 때의 지진.

V. 여섯째 인봉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5-17)

- A. 사도 요한은 이 일에 영향을 받은 사회의 일곱 부류들에 대해 기록한다. 그는 각각의 리더들의 반응에 대해 기록한다 : 임금들(대통령들); 왕족들(세계의 리더들); 부자들(재계의 리더들); 장군들, 강한 자들(사회 리더들); 각 종과 자주자(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계층)
- B.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이적들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진노를 인지하며,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임을 이해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어떻게 이를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선두주자들은 여섯째 인봉에 있을 일들을 자세히 선포하게 될 것이다.
- C. 진노의 큰 날 :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has come)” - 여기서의 문제는 여호와의 날이 방금 시작된 것인지, 이제 곧 시작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이르렀으니”의 동사는 지나간 일을 의미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다가올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곧 일어날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로버트 토마스는 *elthen*(“이르렀으니”)이라는 동사는 부정 과거⁵⁾(고대 그리스어의 동사시제)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한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⁶⁾ 계시록에 나온 찬송들의 동사의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계 11:18; 19:7).
- D. 좁은 의미의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하루(24시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5) 역자주 :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을 가리키는 시제

6) 로버트 L. 토마스 : 계시록 1-7장 : 성서 해석 주석 (시카고 : 무디 출판사, 1992), p.457. - 국내 미번역

여호와와 그의 날은 대 환란의 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3년 반(벤험 3:8)과 1,000년 동안 지속되는 “하루”를 말한다.

VI. 여섯째 인봉 : 하늘의 이적들은 추수와 성령의 부으심을 말해준다.

A. 여섯째 인봉에서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열방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7)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예수님)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6-7)

B. 여섯째 인봉의 내용은 요엘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령님의 부으심의 시기와 관계된 내용들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before)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욘 2:28-31)

그 날 환난(첫 다섯 인봉 심판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한글 KJV : 그후에, Then)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일곱째 나팔) (마 24:29-30)

C. 정리 : 여섯째 인봉은 순교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방이 흔들리며, 성령님의 쏟아 부으심이 있으며, 대 추수가 있게 된다.

VII. 심판 가운데, 악인들이 죽음과 수태하지 못할 것을 구함 (호 9-10장)

A. 호세아는 가혹한 심판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 죽음으로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구하며(호 10:8), 그들의 자녀들이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자녀를 주지 않으실 것을 구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 단 14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 9:13-14)

이스라엘의 죄 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찢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호 10:8)

7) 역자주 :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만국의 보배(예수님)가 이르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NKJV에서는 “they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그들이 열방의 소망에게로 나아올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환란 때의 추수는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구절에 대한 NKJV의 번역에 대해 눈여겨 보며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B. 이스라엘의 제단이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되었기에, 이곳에는 가시와 엉겅퀴(짚레)가 자라났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앗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감으로(BC 722)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다.

VIII. 죽음과 수태치 못할 것을 구함 (눅 23:28-31)

- A. 예수님께서서는 호세아의 예언(호 9:14; 10:8; 죽음과 수태하지 못함)의 두 가지 측면을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눅 23:29-31), 대 환란(마 24:19)에 대해 적용하였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눅 23:28-31)

- B. 예루살렘의 멸망은 두 가지 속담을 통해 예언되었는데, 고통으로 수태치 않는 것과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두 가지이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대 환란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 C. 여섯째 인봉에서 어떤 이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숨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 호세아 10:8절의 죽기를 구하는 것과, 이사야 2:10절의 안전을 위해 숨는 두 가지 일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 D.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자녀와 예루살렘을 위해 울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눅 13:34-35; 19:41-44; 21:20-24). 그들의 눈물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 E. 요엘은 닥치게 될 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것과 중보할 것에 대해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심판을 취소하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욘 2:12-13)

- F.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의 여인에게 적용하셨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 19 그 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 24:15-20)

- G. 30절에서와 같이,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은 절망 가운데 말하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대 환란 때에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눅 23:30-31)*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
리라. (한글 KJV)*

- H. 예수님께서서는 속담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전에 없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 예언하셨다(31절). 명백한 사실은 불이 나무들을 불태우고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파괴됨의 정도는 나무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나무가 말라있을 때는 불은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나무가 푸를 때는 불이 심각한 피해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마른 나무는 불이 더 잘, 빨리 붙는다. 이 속담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인, 이후의 시간에 불이 더욱 심하게 임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 I.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역사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불이 붙는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속담은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예루살렘이 불탈 것으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주어졌다. 여기서의 “사람이(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악한 자들(유대인과 로마인들)을 지칭한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등을 돌리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함으로 불을 붙이게 된다.
- J.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적용** : 푸른 나무의 때는 죄가 아직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무르익지 않은 때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로마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때,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때에 그분이 허락하실 일은 어떠한 것인가? **가까운 시기의 성취** : “푸른 나무”는 예수님의 선한 사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의 “마른 나무”의 시기는 AD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이라는 가혹한 심판을 낳았다. **먼 미래의 성취** : 역사 가운데 “푸른 나무”의 때는 1세기의 로마와 주변 나라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아직 열방의 죄가 무르익지 않은 때이다.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이후인 “마른 나무”의 때는 어떠한 것인가?